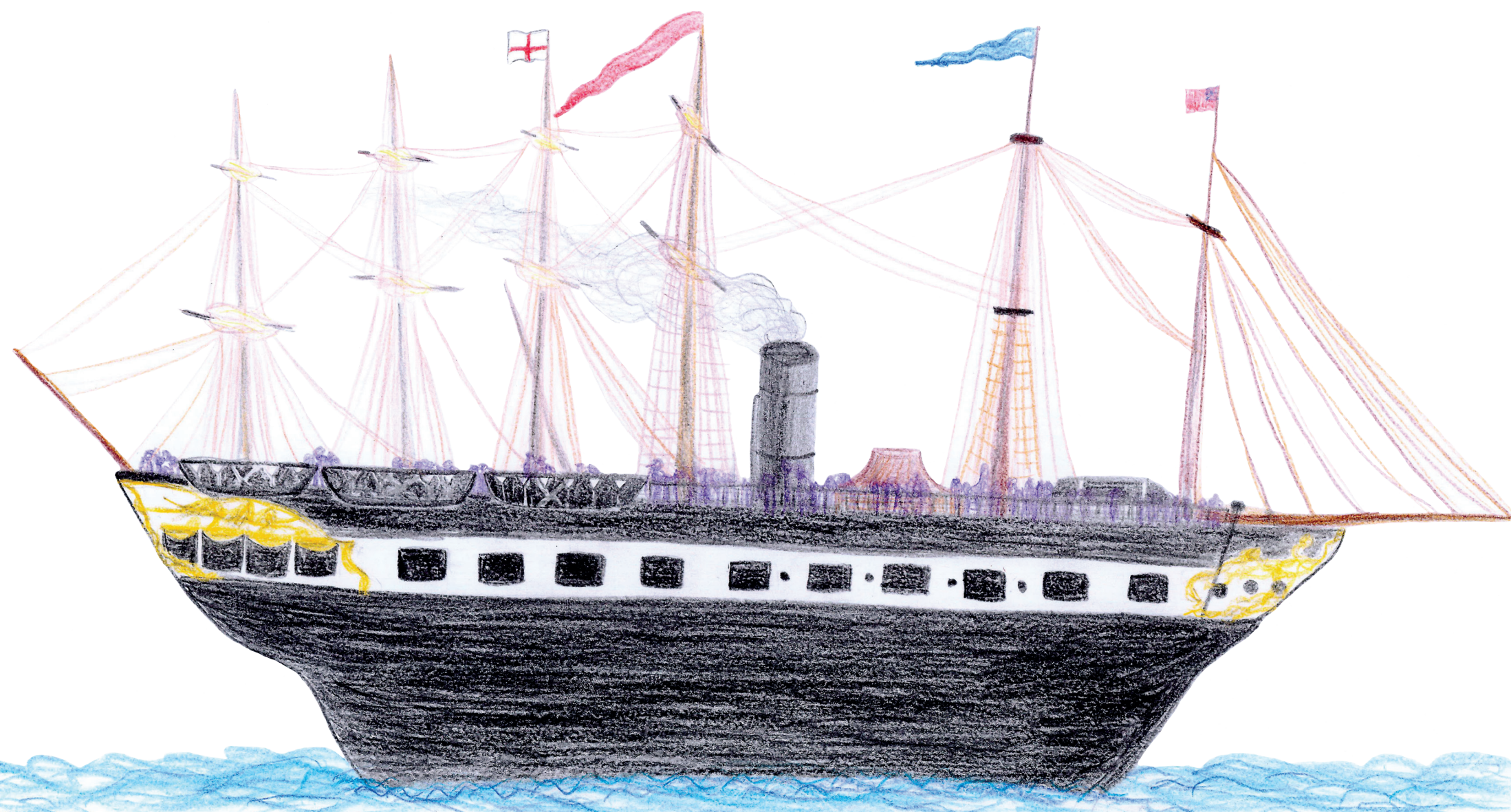




MY FIRST VOYAGE

by Huimyeong Lee



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에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철재로 만들어진 최초의 대서양 여객선 SS Great Britain의 9번째 항해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항해는 이 배가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던 첫번째 여행이었어요. 1852년 8월 21일 영국의 리버풀에서 출발해서 1852년 11월 12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까지 도착하는 정말 오랜 기간의 여정이었습니다.

This story is based on the 9th voyage of the SS Great Britain, the first transatlantic passenger ship made of iron using innovative technology in the mid-19th century. The voyage was a significant journey from the United Kingdom to Australia, marking the ship's inaugural trip on this route.

It was a long journey that commenced on August 21, 1852, from Liverpool, United Kingdom, and concluded on November 12, 1852, upon reaching Melbourne, Australia.

Huimyeong worked with the SS Great Britain archive to research this voyage, identifying John, a 12 year old boy who worked on board, and using passenger diaries to pick out events of significance from this voyage. Using research about the typical occupations of a cabin boy on a victorian Steamship, she created this story, and illustrated the events.

Huimyeong's work formed part of the Exchange project, a community-led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 During 2021 and 2022, SS Great Britain Trust worked with the Bridging Gaps Community Group at Hannah More School, St Phillips, one of seven regional museum partnerships in the project.

Find out more about the project and other work created at ssgreatbritain.org/exchange-project

MY FIRST VOYAGE

by Huimyeo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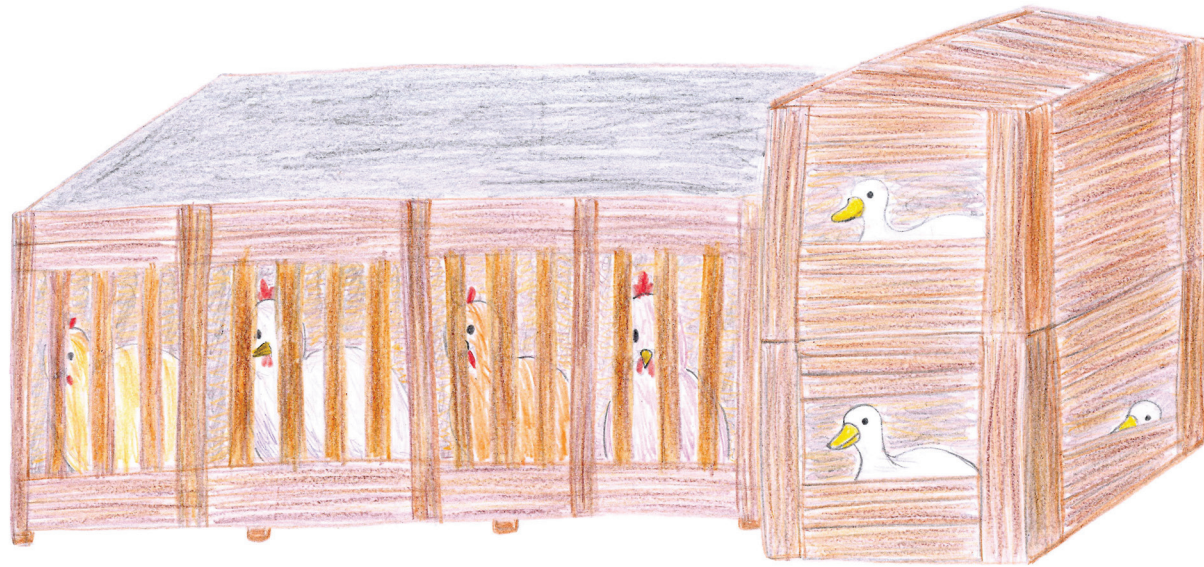




이제는 항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이 갑판 위에서 작별 인사를 크게 외치고
있네요. 여기에서 저 소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 하나뿐이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항구에 배웅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배는 영국 리버풀에서 호주 멜버른까지 가는
여객선이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거의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긴장되고 울고 싶은 건 바로
저랍니다. 12살에 가족 하나 없이 이 큰 배에 혼자 탄 데다가,
리버풀을 떠나는 건 제 평생 처음인걸요.

I can't see the faces of the people in the far harbour anymore. Many people are still shouting farewells loudly from the deck. I think I might be the only one who doesn't want to hear that sound. I don't have anyone to see me off like everyone else. Of course, it's not that I don't understand how they feel.

This is a passenger ship from Liverpool, England to Melbourne, Australia and it takes about two months to get there. But I'm the one who's nervous and wants to cry more than anyone else. I'm a 12-year-old kid on this boat all alone with no family and it's the first time I've ever left Liver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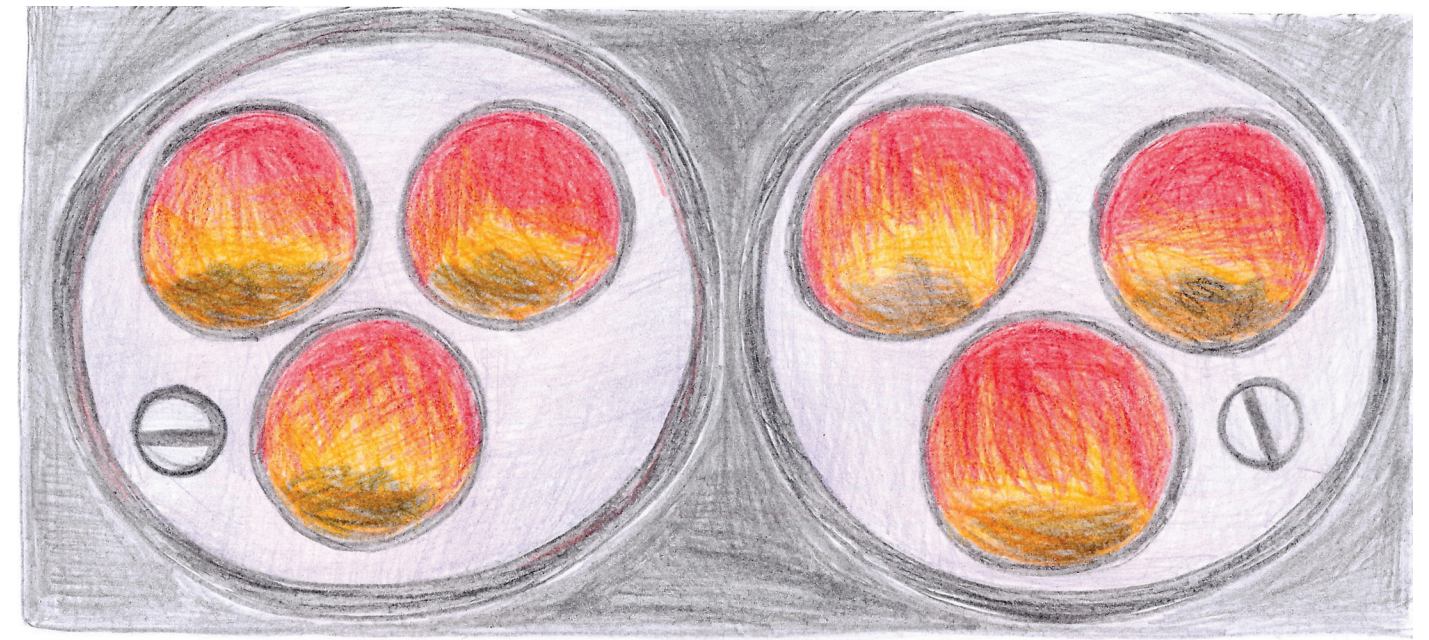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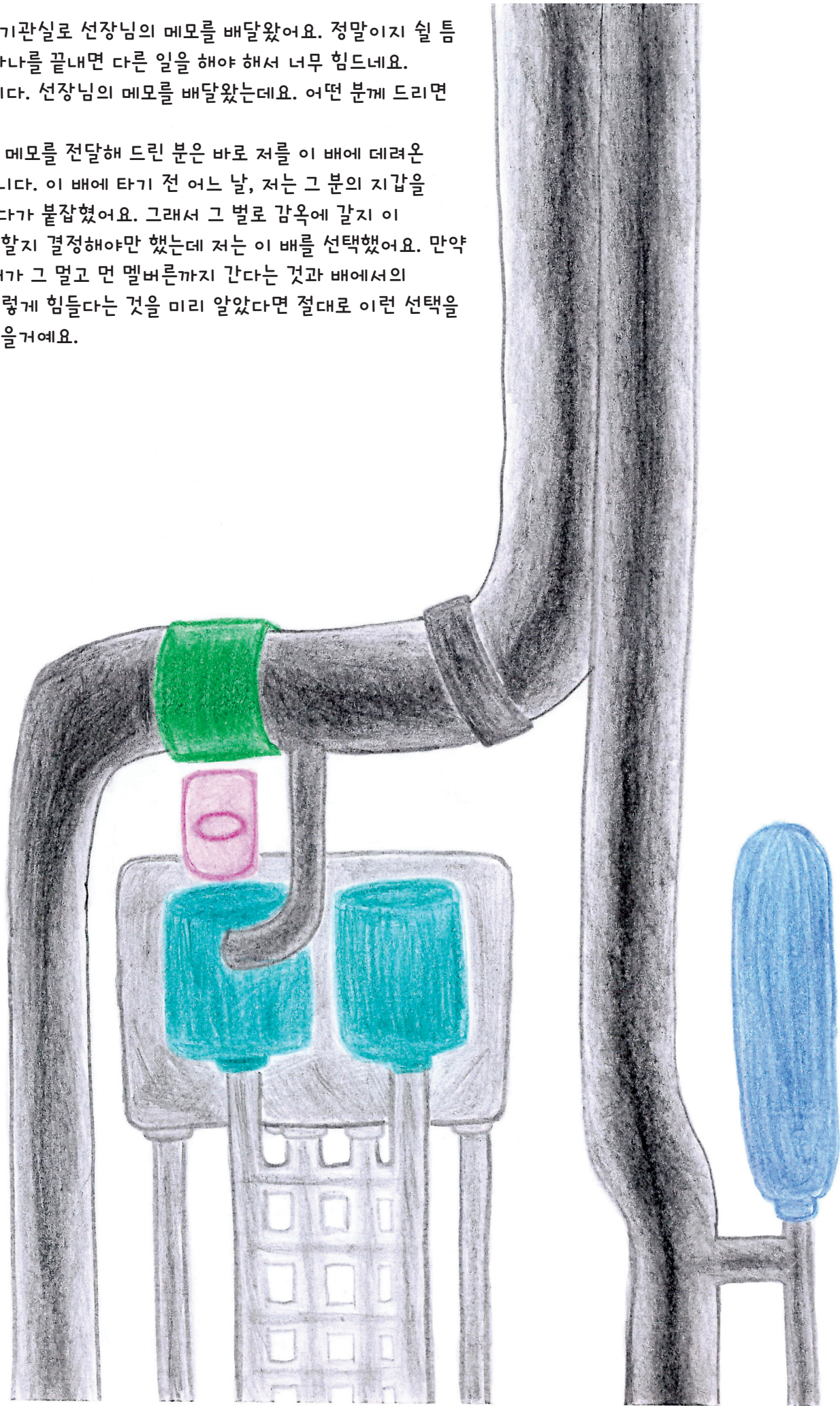
“어이, 보이! 그래 너 말이야. 이제 그만 꾸물대고 일 시작해야지!”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요? 저는 갑판 위 저 굴뚝 뒤에 있는 가축우리에 가고 있어요. 이 배에는 승객들의 식재료로 사용될 소, 돼지, 닭, 오리가 있는데 그 가축우리를 청소하는 게 제 일입니다. 개들의 냄새는 무척 지독해요. 저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차차 알려줄게요.

“Hey Boy! Come on! You have to start work now!”

“I’m on my way!”

Where am I going now? I’m headed for the animal pens behind the black smokestack over there. The ship has a cow, pigs, chickens and ducks that are used as food for passengers, and I have to clean up after them. They smell really bad. Why do I have to do this? I’ll tell you that soon.

이번에는 기관실로 선장님의 메모를 배달했어요. 정말이지 쉴 틈 없이 일 하나를 끝내면 다른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드네요.
 “실례합니다. 선장님의 메모를 배달왔는데요. 어떤 분께 드리면 될까요?”
 지금 제가 메모를 전달해 드린 분은 바로 저를 이 배에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배에 타기 전 어느 날, 저는 그 분의 지갑을 몰래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벌로 감옥에 갈지 이 배에서 일할지 결정해야만 했는데 저는 이 배를 선택했어요. 만약 그때 이 배가 그 멀고 먼 멜버른까지 간다는 것과 배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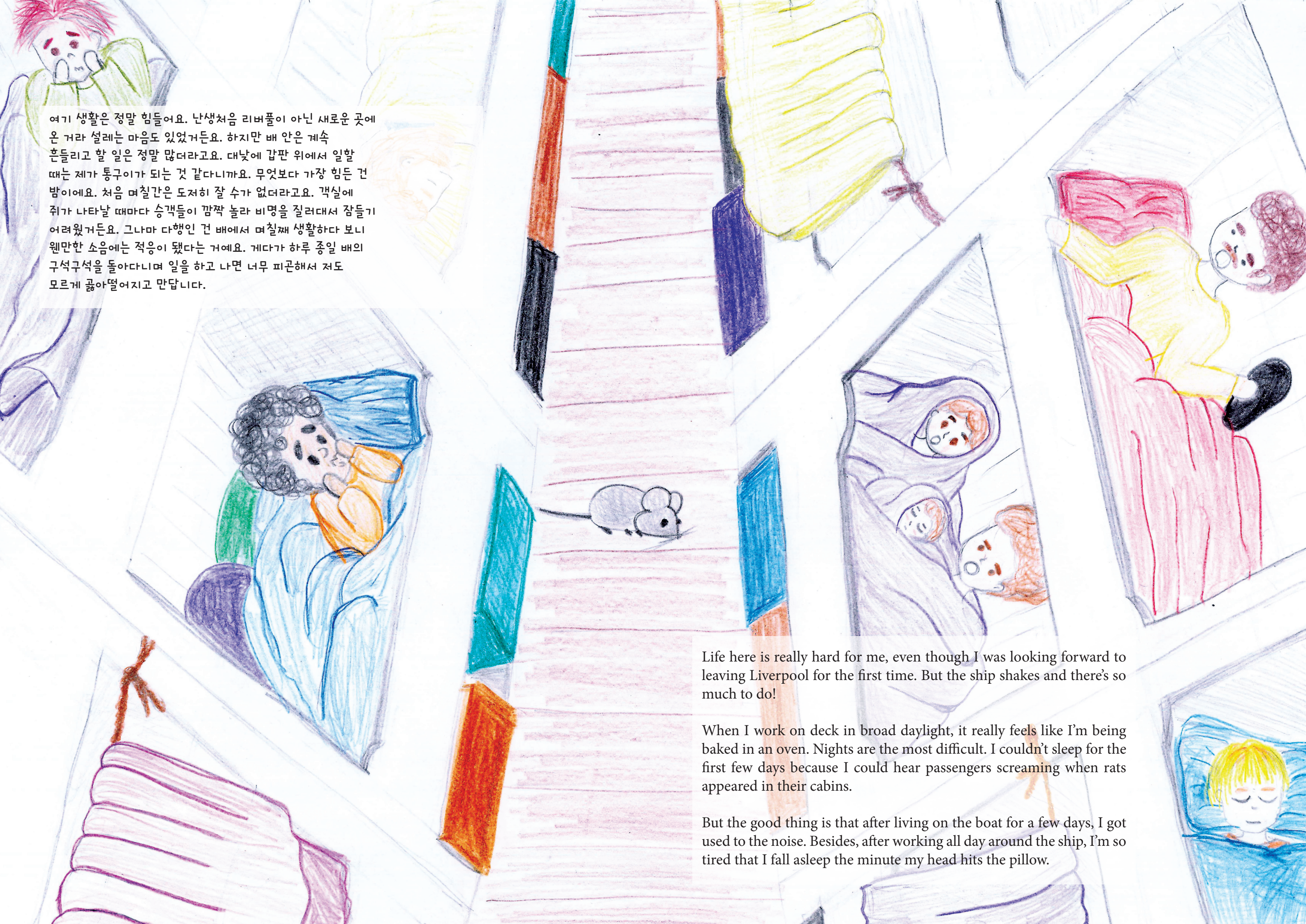


This time, I'm asked to deliver the captain's memo to the engine room. It's really hard to finish one job without a break and then have to do another.

“Excuse me, I have the Captain's memo. Who should I give it to?”

The man I give the note to was the one who brought me to work on this ship. I stole his wallet and was caught right away. I had to decide whether to go to jail or work on a ship as punishment. I chose this ship. Of course I would never have chosen this if I knew we were going all the way to Melbourne and life on the ship would be this challenging.





여기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난생처음 리버풀이 아닌 새로운 곳에 온 거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 안은 계속 흔들리고 할 일은 정말 많더라고요. 대낮에 갑판 위에서 일할 때는 제가 통구이가 되는 것 같다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에요. 처음 며칠간은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객실에 쥐가 나타날 때마다 승객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대서 잠들기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배에서 며칠째 생활하다 보니 웬만한 소음에는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종일 배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꿀아떨어지고 만답니다.

Life here is really hard for me, even though I was looking forward to leaving Liverpool for the first time. But the ship shakes and there's so much to do!

When I work on deck in broad daylight, it really feels like I'm being baked in an oven. Nights are the most difficult. I couldn't sleep for the first few days because I could hear passengers screaming when rats appeared in their cabins.

But the good thing is that after living on the boat for a few days, I got used to the noise. Besides, after working all day around the ship, I'm so tired that I fall asleep the minute my head hits the pillow.

오늘은 정말 더웠지만 저희 보이들은 승객들을 위해 갑판 위에 목욕 준비를 해야 했어요. 커다란 통들과 따뜻한 물을 나르며 힘들게 준비를 마쳤지만, 승객들은 한참이 지나도 갑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바깥에서 목욕하는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결국 한 승무원이 저희에게 모두 다 치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있던 저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목욕통으로 뛰어들며 말했어요. “어차피 버릴 물인데 뭐 어때?” 저희는 놀란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따뜻한 물에 푹뒹 뛰어들어서 물도 튀기며 한참을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다른 보이들과 이야기해 본 거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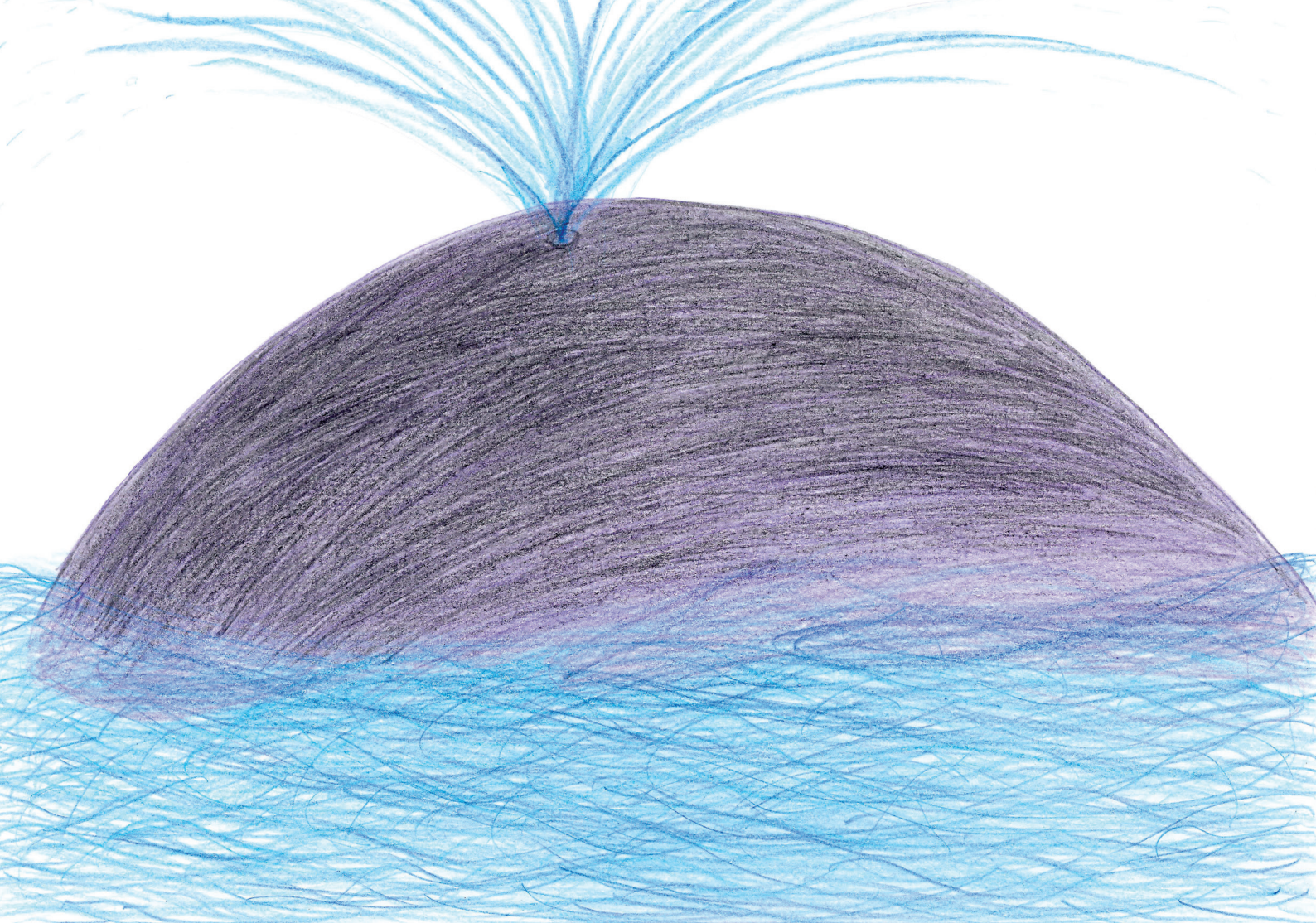
Today was a really hot day, but I and the other Boys had to prepare a bath on the deck for passengers who wanted to bathe. We carried several barrels and warm water, working hard to set everything up. However, even after a few hours had passed, passengers didn't show up on the deck to bathe. I guess they were embarrassed to take a bath outside.

After all this, a Steward told us to clean everything up. But already exhausted, we didn't want to lift a finger. One of us suddenly splashed into a barrel, saying:

“It's water that needs to be thrown away anyway, so it doesn't matter right?”

We looked at each other with surprise and eventually all went into the warm water, splashing water on each other and having a fun time for a while. But you know what? I actually talked to the other boys for the first time today.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너는 오늘도 왕창 땀구나!”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소와 돼지에게 불평하며 청소하고 있을 때,
다른 보이 중 한 명인 다니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 나 아직 다 못 끝냈어!”

“안 돼, 그럴 시간 없어. 너 이거 놓치면 분명 후회할 거야!”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끌고 갑판 한쪽으로 갔어요. 제가
따지려는데 그 애는 제 고개를 바다 쪽으로 돌려주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거대한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며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잊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대한
회색 바위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고래 좀 봐! 정말 멋지지 않냐?”

다니엘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고래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고래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멋진 것이 분명해요. 저는 고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It’s terribly hot, and you stink!”

I grumbled while I cleaned the cow and pig pens. Daniel, one of the other Boys, called me all
of a sud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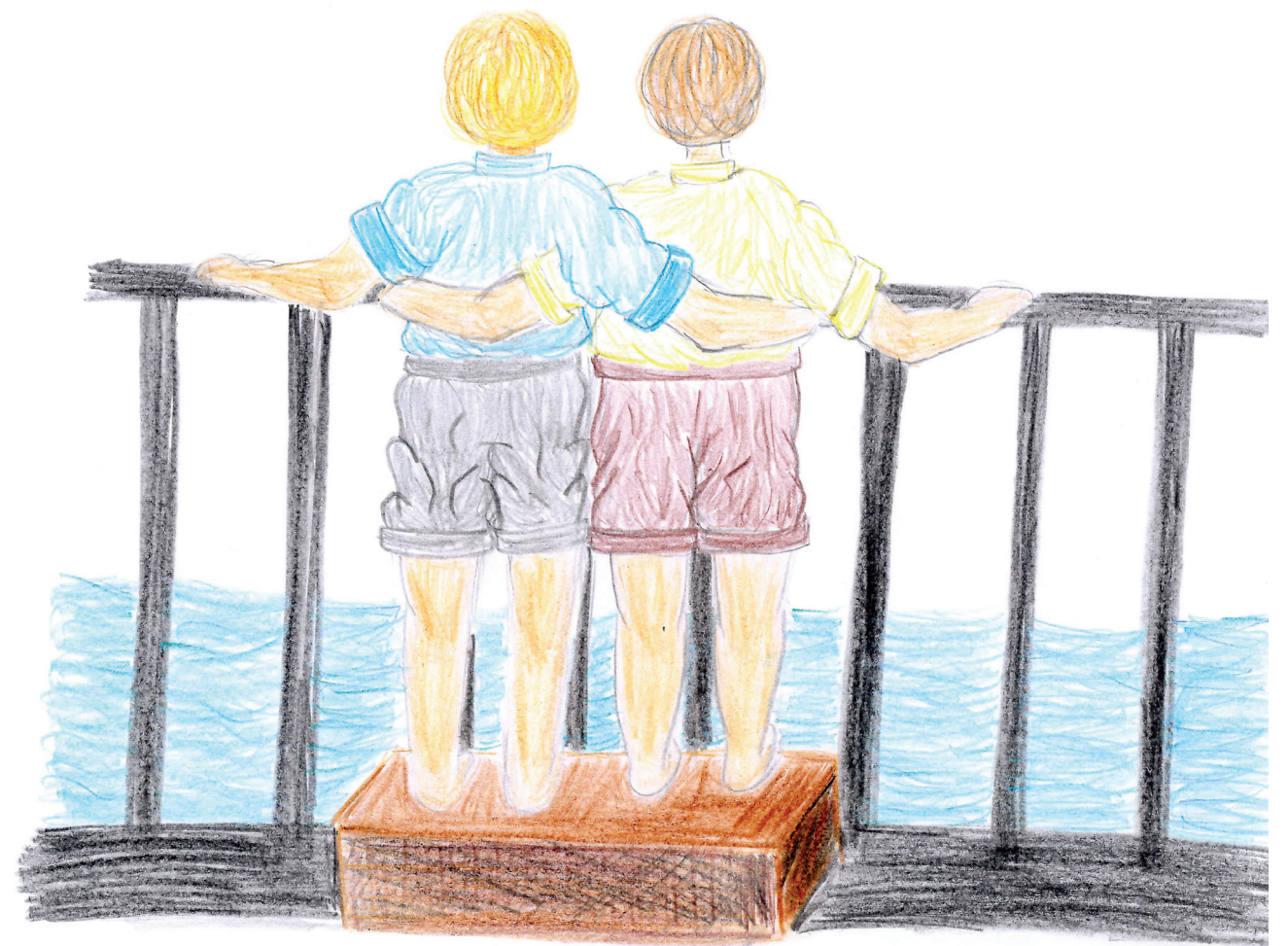
“Wait, I’m not done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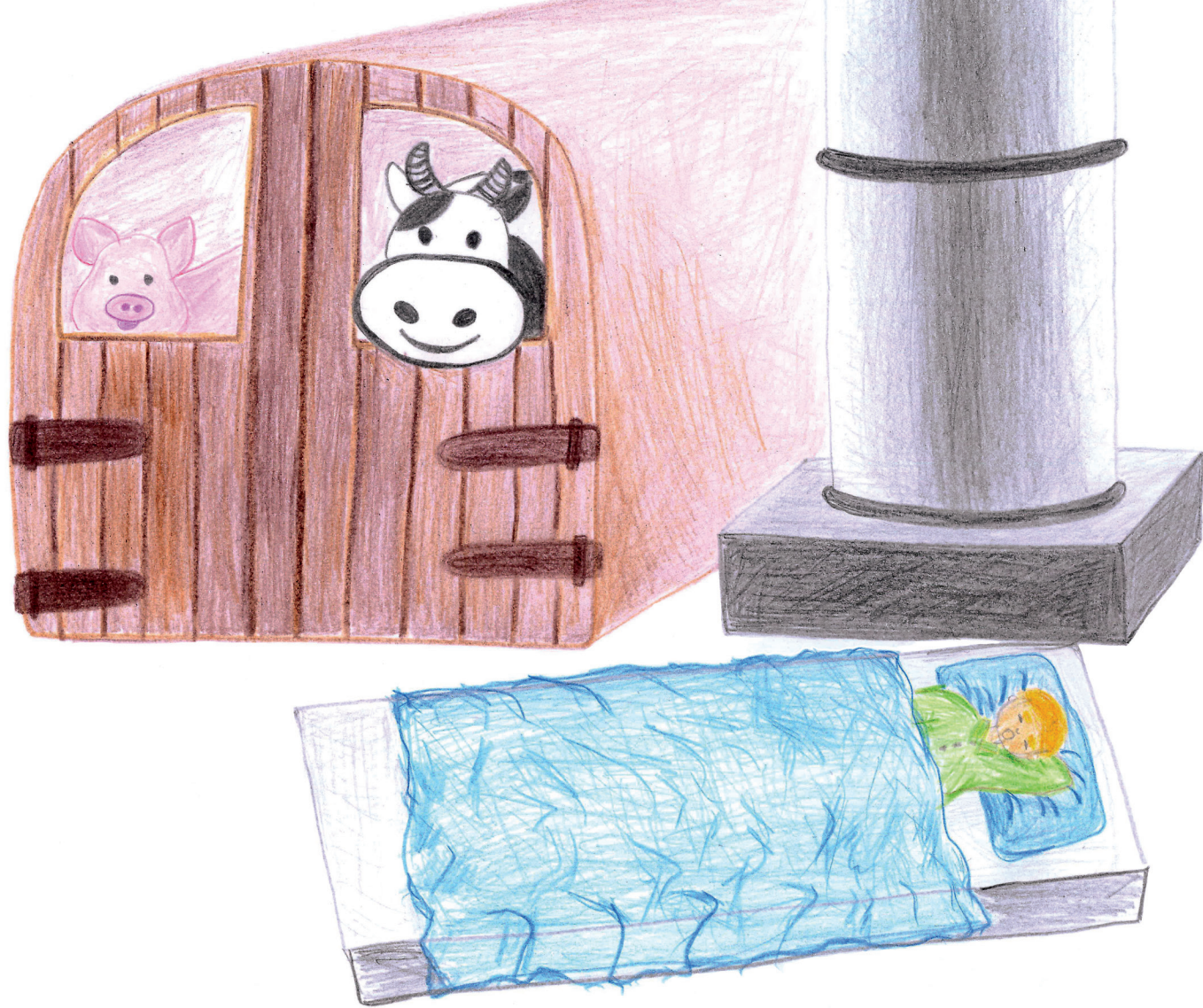
“No! We don’t have time! If you miss this, you’ll regret it!”

He dragged me to one side of the deck. I was going to protest, but he turned my face to the sea.
I was speechless when I saw a large fountain sprouting out of the sea. Then, what looked like a
massive grey rock surfaced after it.

“A whale! Isn’t that amazing?”

Daniel told me with a big smile. Actually, I still don’t know exactly what a whale is, but I know
for sure it’s the biggest and coolest thing in the world. I stared for a long time until I couldn’t
see it anymore.





저는 오늘도 가축우리 앞에서 잠을 자려고 해요. 밤이 되면 선실 안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거든요. 조금 흔들리기는 해도 바람이 불어서 밖이 훨씬 시원하답니다. 그래서인지 갑판 위에서 자는 승객들도 많아졌어요. “너는 이 냄새가 지독하지도 않아? 어떻게 매일 그 앞에서 잘 수 있는 거야?” 저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무시는 한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매일 이곳을 청소해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 대답에 아저씨는 웃으며 비스킷을 던져주셨어요. 그러자 다른 아저씨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냄새에 얼른 익숙해져야겠구나. 너처럼 갑판 위에서 제일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요즘 잠들기 전 잠자리에서 다른 승객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다 잠드는 게 제 일상이랍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저도 동물들의 냄새를 참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개네한테 익숙해진 덕분에 이렇게 갑판 위 제일 넓은 자리를 제가 차지하게 되었네요. 모두 이 냄새 때문에 여기 근처는 다 피하니까요.

I’m going to sleep on the deck in front of the pens again. It’s gotten so hot at night that I can’t sleep in the cabin. It is a little rocky, but it’s much cooler outside because of the breeze. Many passengers began to sleep on the deck too.

“Do you like this smell? How can you sleep in front of them every night?” asked a man who sleeps a few meters away from me.

“You’ll get used to it if you clean it every day like me, Sir.” I said.

He laughed and threw me a biscuit. Another man said:

“I’m going to have to get used to this smell so I can take up as much space as you!”

These days, it’s my daily routine to chat with the other passengers who set up their beds nearby before I go to sleep.

Come to think of it, I hated the smell of the animals at first, but thanks to them, I’m sleeping in the widest part of the deck. Everyone else wants to avoid this smell, so they avoid coming near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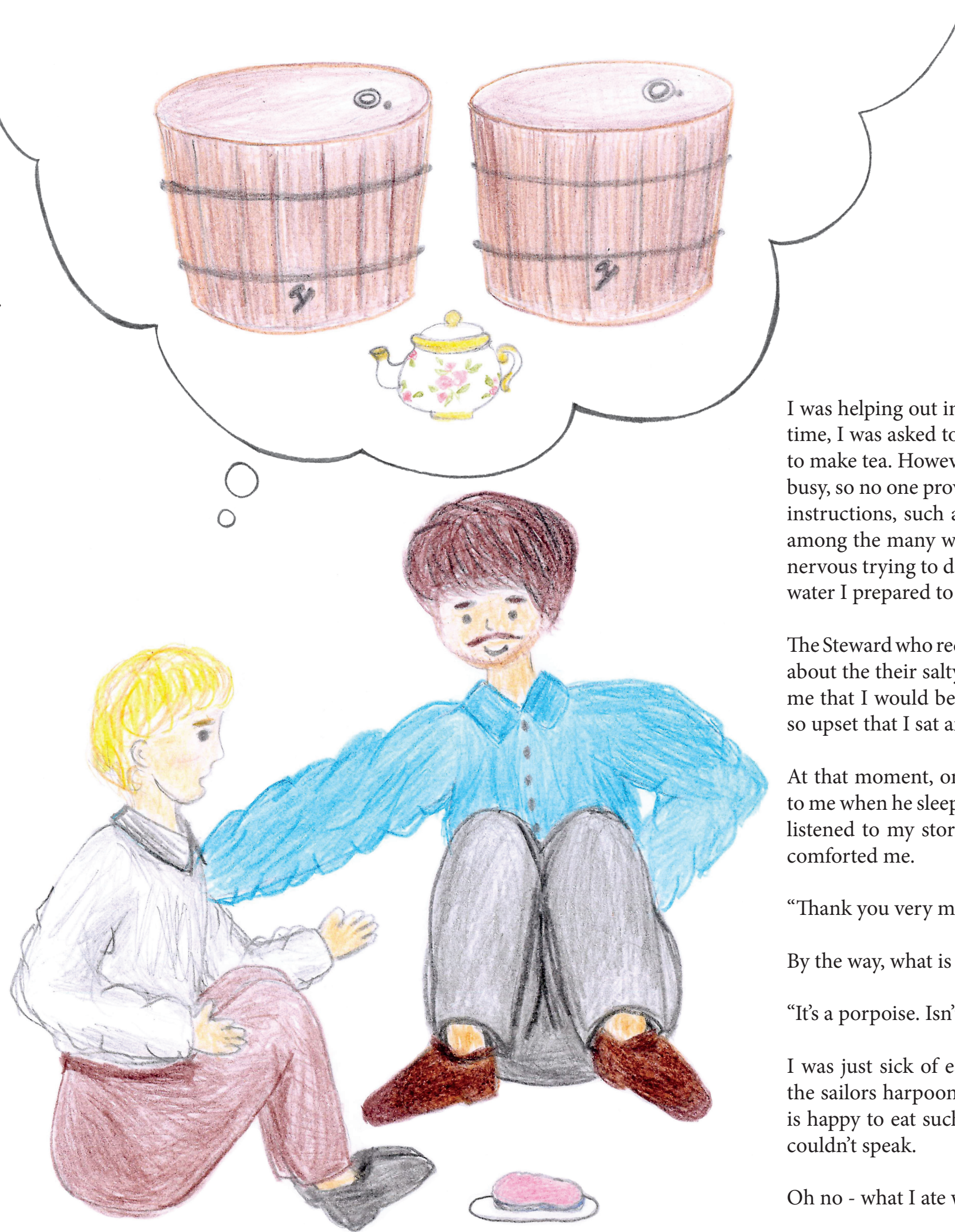


오늘은 부엌에서 일을 도와드리다가 처음으로 승객분들이 드실 차 끓일 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들 바쁘신지 부엌에 있는 그 많은 물통 중에서 어떤 통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하고 자세한 설명은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려니 당황스럽고, 긴장됐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준비한 차물은 안타깝게도 바닷물이었지 뭐예요. 승객분의 항의를 받은 승무원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이번 주 봉급은 못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가축우리 앞에 앉아서 훌쩍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시던 승객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갑판 위에서 잘 때 저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 중 한 분이세요. 그 아저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건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크는 무슨 고기예요? 정말 맛있네요!”

“그건 돌고래란다. 정말 맛있지 않니? 마침 여기서 나오는 매일 똑같은 음식에 질리던 참이었는데 선원 중 한 명이 작살로 이걸 잡았단다. 덕분에 오랜만에 별미를 먹어서 다들 기분이 좋아.”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맙소사 내가 돌고래를 먹다니!



I was helping out in the kitchen today when, for the first time, I was asked to prepare boiling water for passengers to make tea. However, the people in the kitchen were too busy, so no one provided me with important and detailed instructions, such as which water boiler of water to use among the many water boilers there. I felt confused and nervous trying to do it, and as a result, unfortunately, the water I prepared to make tea was seawater.

The Steward who received complaints from the passengers about the their salty tea got very angry with me and told me that I would be docked a week's wages. I was feeling so upset that I sat and sniffled in front of the pens.

At that moment, one of the passengers that always talks to me when he sleeps on deck, approached me. He quietly listened to my story, then gave me a piece of steak and comforted me.

“Thank you very much, sir.

By the way, what is this steak made of? It's really good!”

“It's a porpoise. Isn't it really delicious?”

I was just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here and one of the sailors harpooned it today. Thanks to him, everyone is happy to eat such a delicacy. I was so surprised that I couldn't speak.

Oh no - what I ate was a dolphin?



“Help me! Someone please help me!”

They’re going to grab our Boys one by one, shave our heads, and dunk us in a barrel of water. Male passengers were also caught one by one. What’s going on?

Since we’re passing the equator now, we have to do a “Crossing the Line Ceremony”.

One of the sailors dressed up as “Neptune” the King of the Sea, and some of the other sailors are dressed up as Neptune’s assistants. It started when Neptune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he captain.

At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rockets were fired and blue lights shone in the sky.

It was fantastic because the whole spectacle twinkled with blue. Unfortunately, I was the first one to be “baptized”. I don’t think I saw anyone who wasn’t soaked through tonight!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저희 보이들부터 하나씩 붙잡아서 머리를 밀고는 물에 빠트렸어요. 남자 승객들도 하나씩 붙잡혀 왔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저희 배는 적도를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적도 통과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 중 한 분이 바다의 왕 넵툼으로 분장하고 다른 몇몇 선원들은 넵툼의 신하로 분장했어요. 넵툼이 선장님과 인터뷰하면서 그것이 정식으로 시작됐죠. 인터뷰가 끝날 때 로켓이 발사되면서 파란 불꽃이 하늘에서 터졌어요. 온통 파랗게 반짝이는 광경이 정말 환상적이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제일 처음 붙잡혀서 물통에 빠진 사람은 저였지만 오늘 밤 물에 안 빠진 사람은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의 파도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원래는 밤만 되면 피곤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곯아떨어지는 저조차도 침대가 너무 흔들리는 바람에 한숨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한밤중에 호출을 받아서 다니엘과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갔어요.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승객 중 한 분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코가 부러졌대요. 그래도 저희는 당황하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이미 그곳의 분위기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저희는 흔들리는 그 방안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선반이나 침대를 붙잡으면서 깨끗한 천부터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천을 최대한 많이 꺼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천을 전해드리는 순간 하필이면 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덕분에 저는 천장까지 붕 떴다가 곧장 바닥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로 더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멀쩡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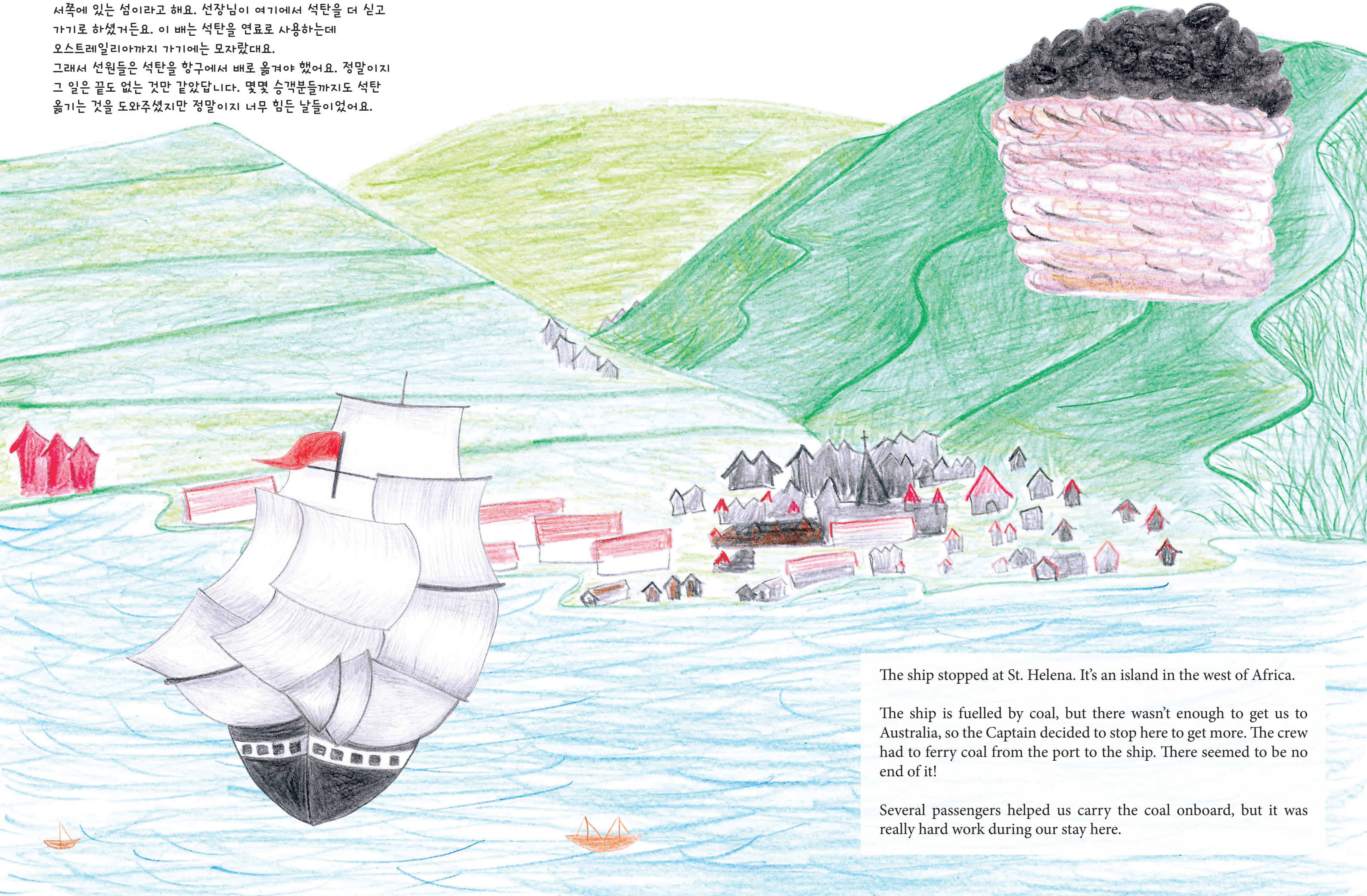
I think today's waves were the worst I've seen. I have always been really tired at night, so I could fall asleep in any situation, but tonight I couldn't sleep a wink because I kept being tossed around in my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heard a sudden call for us. Daniel and I were brought to the surgeon. As soon as we stepped into his cabin, we could smell the blood.

One of the passengers fell out of his berth and broke his nose. But we couldn't be embarrassed. The atmosphere there was already too serious. We held out clean cloths first, holding onto a shelf or bunk to keep our balance. The surgeon asked for the cloths to be taken out as much as possible. As soon as I passed a cloth to the surgeon, the ship shook strongly once again, and I flew up to the ceiling and immediately fell to the floor. Fortunately, no one has been injured since then. I was fine, too.



저희 배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멈췄어요. 이곳은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해요. 선장님이 여기에서 석탄을 더 싣고
가기로 하셨거든요. 이 배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기에는 모자랐대요.
그래서 선원들은 석탄을 항구에서 배로 옮겨야 했어요. 정말이지
그 일은 끝도 없는 것만 같았답니다. 몇몇 승객분들까지도 석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지만 정말이지 너무 힘든 날들이었어요.



The ship stopped at St. Helena. It's an island in the west of Africa.

The ship is fuelled by coal, but there wasn't enough to get us to Australia, so the Captain decided to stop here to get more. The crew had to ferry coal from the port to the ship. There seemed to be no end of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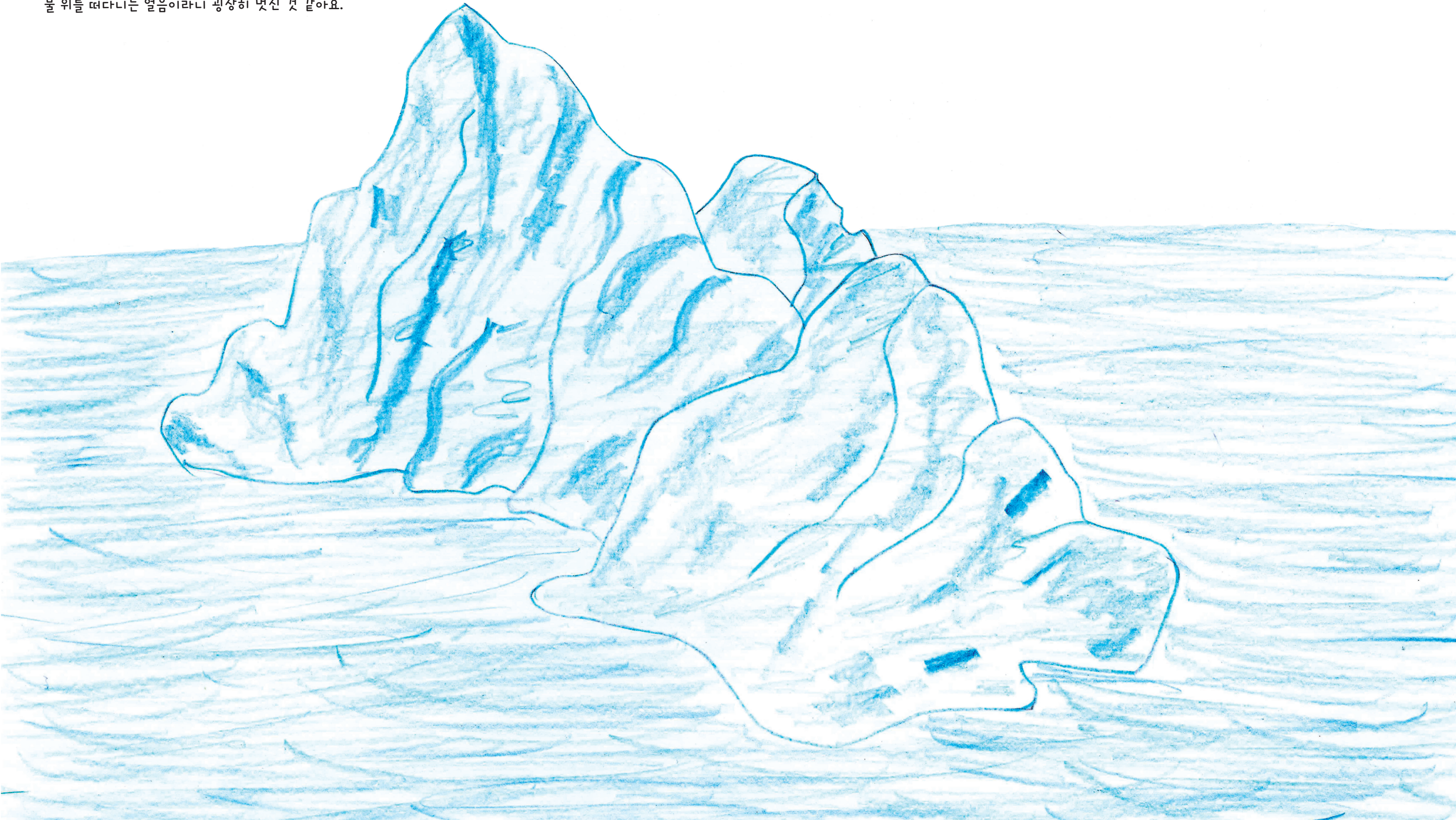
Several passengers helped us carry the coal onboard, but it was really hard work during our stay here.

이제 저희 배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의 다 왔다고 해요. 저는 평소처럼 가축우리를 청소하고 갑판 위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바다 위에 하얗고 거대한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너무 굉장해서 저는 다니엘을 얼른 갑판 위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벌써 너무 멀어서 그 애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멋진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나중에 어떤 선원 아저씨가 그것은 빙하였다고 알려주셨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이라니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I heard our ship is almost in Australia. I was cleaning the pens as usual and resting on the deck for a while. Then I saw something a huge and white over the sea.

It was so amazing that I brought Daniel on the deck, but it was too far away for him to see. I really wanted to show something cool to him this time, but I couldn't, so it was a shame.

A sailor later told me that it was an iceberg. I think it's really cool that ice floats on water.



“존, 아직 멀었어? 빨리 좀 가져와.”

“존, 좀 더 오른쪽, 아니 다시 왼쪽, 그래, 거기 그대로 고정해!”
오늘은 저를 부르는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녁에 있을 무도회를 준비하는 승무원들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도회에 실제로 가 본 적은 없었는데 처음부터 하나씩 준비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바닥 쓸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식품을 옮기고 장식하는 것을 도왔어요. 많은 트렁크 속에서 장식용 깃발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물건 찾기는 제 특기라 빨리 찾았답니다. 천장에 깃발들까지 다 달고 나니 장식이 끝났어요. 이곳은 원래도 멋진 곳이지만 이렇게 꾸미고 나니 더 멋진 것 같아요.

“John, Where are you? Hurry up.”

“John, a little more to the right, no again to the left, yes, fix it there!”

There are a lot of people calling me today. I was helping the stewards prepare for a ball taking place this evening. I've never actually been to a ball in my life, but it was fun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preparing one from the beginning.

I started with sweeping the floor and then helped move and decorate various ornaments. I was a little at a loss when I had to go through several trunks for flags, but fortunately, I was good at finding things, so I found them quickly.

After hanging the flags from the ceiling, the decorating was done. This dining saloon looks even better like this!

드디어 멜버른에 도착했어요! 이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네요. 제 인생의 첫 여행이 이렇게 멀고 긴
시간이 걸릴 지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저는 저를 이 배에 타게 해준 그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아저씨 덕분에 처음으로 제대로 일해서 돈도
벌어봤고, 리버풀이 아닌 곳으로 여행도 해봤고, 친구도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리버풀로 돌아가면 항구에 일자리도
소개해 준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을 원망하며 나쁜 짓만 하던
애송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리버풀로 돌아가는 항해도 정말 기대돼요.

Finally, we arrived in Melbourne! I can't believe that this long journey is finally coming
to an end. Who would have imagined that the first trip of my life would take this long
and go this far?

Now I'm really grateful to the man who put me on this ship. Thanks to him, I was
able to get my first regular salary, I traveled to places other than Liverpool, and made
friends. He said that when I go back to Liverpool he will introduce me to someone I
can work for in the harbour.

I think I can do anything well now. Before I got on this ship, I used to hate this world
and do bad things, but now I know how big and beautiful this world is, and I realize that
there are many good people. I think it'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such good things
have happened to m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voyage back to Liverpool!



이야기에 나오는 몇 가지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ings in the story

‘선박 비스킷’ 혹은 ‘하드 택’이라고도 불리던 밀가루와 물, 소금으로 만든 딱딱한 비스킷은 오랜 항해 동안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서 선박의 필수 식품이었어요. 이 비스킷은 두껍고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스킷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이가 다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뜨거운 물에 불려서 귀리죽처럼 만들거나 견과류와 섞어서 먹기도 하고, 먹기 전에 잼을 골고루 발랐다가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The biscuit, also known as ‘ship’s biscuit’ or ‘hardtack’, made from flour, water, and salt, was a hard and durable biscuit that didn’t get moldy even during long voyages, making it a staple food onboard the ship. This biscuit was thick and extremely hard, so it couldn’t be eaten like the biscuits you are familiar with. It is said that if you tried to eat it, your teeth might break. Therefore, people at that time would mix it with hot water to make it into a porridge-like consistency, or combine it with nuts and eat it, or spread jam on it before consuming.



Rowland씨의 선박 비스킷; 1874년 ss great britain의 승객

A ship’s biscuit belonging to Mr Rowland; a passenger on the SS Great Britain, 1874
Collection object number 1997.113

이 배는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큰 나선형의 스크루를 통해 선박을 움직이는 증기선이었습니다. 석탄이 없으면 배가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세인트헬레나 섬에 머무르면서 석탄을 충분히 채워야만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리버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까지 두 달 정도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9번째 항해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ship relied on the steam generated by burning coal to propel itself through a large spiral screw, which rotated and moved the vessel forward. As coal was essential for proper operation, the ship had to stay in Saint Helena Island for a while to replenish its coal supply. At that time, it would take about two months to travel from Liverpool, UK to Melbourne, Australia, But because of this stop the 9th voyage took even longer.

‘적도 통과 의식’은 보트가 적도를 통과할 때 배위에서 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적도를 통과해 본 적이 있는 선원들이 적도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선원 혹은 승객들을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의식이죠. 행사의 정확한 내용은 배마다 다르지만 특정한 도전이나 과제를 견디면서 바다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경의를 표시하고 중요한 지리적 경계인 적도를 가로지른것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The “Crossing the Line Ceremony” is a long-standing maritime tradition that takes place on a boat when crossing the equator. It is a ritual prepared by sailors who have previously crossed the equator for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such a crossing, including new crew members or passengers. While the exact details of the ceremony can vary from ship to ship, it typically involves enduring specific challenges or tasks while paying homage to the perils and challenges of the sea and commemorating the crossing of an important geographical boundary.

